

업원 4천9백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또 응답자의 68.6%는 회사일은 어디까지나 회사일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희생할 수 없다고 응답, 직장보다 가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회사에서 업적을 냈을 때 결정적인 보상과 회사의 동료의 인정을 받은 사회적 보상 중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사회적 보상을 택하겠다는 사람이 82%나 돼 실리를 추구하는 西歐사회에 비해 사회적 인정을 값있게 치는 동양적 사고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.